

SK그룹, 프리미엄 화학제품 “중무장”

SK종합화학, 기술집약화 추진 ... SK케미칼·SK차이나·SKC 시너지 기대

SK종합화학이 프리미엄 화학제품군으로 중무장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그룹에 따르면, 최근 SK에너지의 화학부문 분사로 SK종합화학이 출범하면서 화학관련 계열사가 4개로 늘어난 것을 계기로 시너지 효과 및 규모화를 통해 화학부문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는 2010년 출범한 SK차이나가 최근 중장기 주력사업을 진입 장벽이 높은 에너지와 통신 대신 성장 가능성이 큰 화학부문으로 선정하면서 글로벌 진출도 서두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우선 SK종합화학은 기술기반의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종합화학은 회사의 비전을 Global Top Tier Chemical Company로 정하고 경쟁력 강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비즈니스의 지역적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 석유정제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집약적인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화학기업과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촉매를 이용한 나프타 분해 기술(ACO)과 차세대 폴리머인 넥슬렌(Nexlene)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프리미엄 화학제품으로 무장해 을 차별화해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SKC는 국내 유일의 PO(Propylene Oxide) 생산기업으로, PO를 이용한 고부가 정밀화학제품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PO 다운스트림 사업 강화와 원가경쟁력 확보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SKC는 전체 매출의 48%를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내장재나 냉장고 단열재의 원료인 폴리올(Polyol)을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밀화학, 생명과학, 바이오디젤 등 그린케미칼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SK케미칼의 행보도 기대하고 있다.

SK케미칼은 2010년 친환경 화학 및 생명과학 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내부 조직을 석유화학, 정밀화학, 생명과학 등 3갈래 조직에서 친환경 화학사업과 생명과학 사업으로 재조정했다.

친환경 화학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비전을 세우고 복합소재, 고기능소재, 바이오소재, 에너지소재의 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화학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투명한 플라스틱인 에코젠은 주로 전자기기 외장재로 사용하지만, 열에도 강해 내열용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7월 출범한 SK차이나 역시 중국에서 화학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SK차이나는 지금까지 힘을 쏟았던 에너지와 통신 부문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어느 나라나 진입 장벽이 높다는 한계를 받아들여 주력사업 분야를 중국의 내수경제 성장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큰 화학부문으로 선정하고 2011년부터 집중할 방침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룹의 양대 주력인 에너지와 통신에 비해 다소 비중이 떨어졌던 화학부문을 그룹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며 “2010년이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21>